

# 진안에코르 공공임대주택 공급 앞뒤

### 이달 말 모집공고, 2020년 7월경 입주 예정... 경로당·공부방 등 부대시설 제공

진안군이 공공임대주택 임대공급을 앞두고 있다. 진안에코르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전북개발공사(주)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진안을 군산리 학천동 일대에 2개동 지하1층 ~ 지상9층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44㎡형 50세대, 전용면적 59㎡형 50세대 총 100세대를 공급한다. 진안읍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진안시장과 인접하고(도보 5분)

마이산을 정면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을 자랑한다. 통풍과 일조 등에 탁월한 배치를 고려하여 벌써부터 많은 예비 입주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단지 내에는 지하 및 지상주차장, 경로당, 공부방, 주민회의실 등 부대시설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청약가입,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주민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한다. 진안군은 군민에게 우선 혜택을 제공하고자 2019년 8월 우선공급 거주제한 고시를 시행했다. 모집공고는 11월말 전북개발공사와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고예정이며 접수는 인터넷(www.ap2you.com)만 가능하다. 실제 입주는 2020년 7월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기타 문의사항 : 전북개발공사 주거복지팀(063-280-7500)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을 군산리 학천동 일대에 2개동 지하1층 ~ 지상9층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44㎡형 50세대, 전용면적 59㎡형 50세대 총 100세대를 공급한다.

#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 필요성 주장

### 무주군의회 박찬주의원, 5분 발언

무주군의회 박찬주 의원이 18일 무주군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비축부지 확보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찬주 의원은 "무주군에서 완료하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들이 제대로 검토되어 추진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며, 그 원인을 군 소유 공공용 부지의 부족으로 꼽았다. 백운산 생태숲,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안성예코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예시로 들며 "무주군의 공유재산 공유지 중 사업대상 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비율은 1.1%로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공유지 매입계획 역시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반재산의 부족은 국도비 확보사업, 공모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 추진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에서는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만나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등 감정평가관련 업무 부처에 부지 매입 금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해달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아울러 사업들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고 무주군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업무 전문인력 확보 △공유재산 매입 대상부지 선정 및 검토 △공유재산 업무체계 구축 △의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역별 균형 있는 사업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산업 전반에 소득증대를 불러일으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무주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생전 아내와 했던 약속 올해도 지킨 남편' 감동

### 정천면 신속진씨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진안군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최근 주민 신속진(81, 무거마을)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정천면을 방문하여 현금이 든 봉투를 맡없이 놓고 갔다고 18일 말했다. 지난 2017년 1월 암으로 사망한 아내 김복순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현금 70만원을 기부하며 생전 아내와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



고인이 된 부인 김씨는 암 투병 중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가진 것의 일부를 꼭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해달라는 뜻을 밝혔고, 남편 신씨가 그 약속을 4년째 지키고 있다. 신씨의 첫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으며, 2017년 연말부터는 정천면 내 저소득층 아동에게 장학금 및 교육구입비로 지급되고 있다. 이명진 면장은 "부부의 숭고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장수아카데미, 정재환 초청 특강

장수군은 오는 21일 개그맨 MC 출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정재환 박사를 초청해 '한글, 위대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장수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홍보대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 중인 정재환 박사가 한글의 가치와 역사, 일제 강점기에 한글을 지켜낸 조선어학회에 대해 강의한다. 정재환 박사는 1983년 개그맨으로 데뷔, 다수 방송에서 진행자로 활약하던 중 마흔의 나이로 학문에 뛰어들어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흥미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이번 장수아카데미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장수군청 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장수=고관호 기자

# 현장·행정 소통으로 2020년 장수 만든다

### 28일까지 축산·산림·문화예술 등 관계자 간담회 진행

장수군이 농업·축산업·산림·문화 등 각 분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소통 간담회는 18일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토마토 생산농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축산·산림·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를 연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간담회에서는 장수농공단지 관리자·취업정보센터 신숙, 장계농공단지 관리자 개보수 등 2019년 사업추진 내역 및 20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공모사

업 추진 계획 등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오후 군민회관에서 진행된 토마토 생산농가 간담회에서는 농가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도 사업안 내 및 장수군 토마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20일은 임업인 및 산림조합원과의 대화가 군민회관에서 관계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행정 추진상황 및 2020년 주요 사업 보고, 산림소득창출 및 정책 발굴 토론 등이 열릴 예정이며, 28일에는 축산 분야와 문화 예술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겨울철 안전 확보 만전

무주군은 18일 전통문화의 집 강당에서 2019 무주군 제설봉사대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각 읍면 제설봉사대원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읍면 제설봉사대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무주군 제설대책 공유, 빙판사고 사례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여러분은 눈을 헤쳐 길을 내고 그 속에서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며 "군의 장비와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을 여기 계신 101명의 대원 여러분이 지켜낸다는 자부심으로 건강하고 신속하고 완벽하게 역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제설봉사대는 겨울철 주민안전을 위해 제설 삽 부착 트랙터 등의 장비로 각 마을 안길 등 곳곳의 제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이날 발대식에서는 무주읍과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에서 총 101명의 대원들이 함께 활동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무주군은 2020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동절기 제설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신속한 제설·제빙과 교통취약구간에 대한 관리, 두절 예상 지구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해 재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각 읍면 제설봉사대원 외에 도로정비원 등 25명의 제설요원을 확보하고 굴삭기와 덤프, 트랙, 모래살포기, 트랙터 부착 제설 삽 등 142대의 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안전마이수박작목반 선진지 견학

### 경남 함안 수박 시설하우스 등 선진기술 습득

진안군 안전마이수박작목반(대표 정길상)은 18일 작목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수박 시설재배 선진지인 경남 함안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선진화된 수박 시설재배 기술을 습득을 통한 소득 증대와 다양한 수박 품종 중 진안고원의 기후와 특성에 맞는 품종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함안군 수박재배 단지 내 시설재배 농가현장 방문과 진주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을 통해 사계절 출하 가능한 수박 재배의 선진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또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규격화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선별 출하와 시장개척을 이룬 함안 수박의 성공사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마이수박작목반은 지난 2008년 1월 안전면 40여 농가로 작목반을 결성, 꾸준히 수박재배 면적을 넓히며 체계적 품질·유통 관리를 지속해 온 덕분에 금년도 8.2ha의 면적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뒀다. 올해 안전면 수박 재배면적은 진안군 면단위 중 최대 규모이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